

- 주요 뉴스: 미국 주요 은행의 2/4분기 실적 부진, 경기침체 우려를 가중
 - 연준 월러 이사, 7월에 0.75%p 인상이 적절. 필요 시 인상폭 확대 검토
 - 미국 6월 생산자물가 상승률, 높은 수준 지속. 에너지 가격 급등 등에 기인
 - 유럽위원회,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. 에너지 공급 교란 등이 배경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회피 강화
 주가 하락[-0.3%], 달러화 강세[+0.7%], 금리 상승[+3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일부 대형은행 실적 부진 등으로 매도 증가
 유로 Stoxx600지수는 원자재 및 은행관련주 약세 등으로 1.5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7월 금리인상 수준이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 등이 영향
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4%, 1.1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높은 6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
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3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17.8원, +5.7원) 0.5% 상승, 한국 CDS 하락

		7/14일	7/13일	전일대비			7/14일	7/13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790.4	3,801.8	-0.30%	국채 금리 10y	미국	2.96%	2.93%	3bp
	유럽	406.50	412.81	-1.53%		독일	1.18%	1.15%	3bp
	중국	3,281.7	3,284.3	-0.08%	CDS 5y	한국	52bp	53bp	-1bp
	일본	26,643	26,479	0.62%		중국	85bp	85bp	0bp
	한국	2,322.3	2,328.6	-0.27%	위험 지표	EMBI+	-	494	-
환율	달러지수	108.66	107.96	0.65%		VIX	26.40	26.82	-1.57%
	유로화	1.0018	1.0059	-0.41%		WTI유	95.78	96.30	-0.54%
	엔화	138.96	137.39	-1.13%	원자재	구리	321.1	332.6	-3.46%
	위안화	6.7561	6.7187	-0.55%		금	1,709.9	1,735.5	-1.47%
	원화	1,312.1	1,306.9	-0.40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주요 은행의 2/4분기 실적 부진, 경기침체 우려를 가중

- 7/14일부터 주요 은행의 본격적인 2/4분기 실적 공개가 시작. 먼저 JPMorgan은 이익이 전년동기비 28% 감소한 86.5억달러를 기록했고, 이에 주당순이익이 2.76달러로 예상치(2.88달러) 하회. 이는 투자은행 부문 부진 등에 기인
- 다만 아직까지 기업대출 감소, 대출손실률 증가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. 그러나 당국의 규제강화, 러-우 전쟁, 높은 인플레이션,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등 불확실성 요인을 대비한 자본구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
- JPMorgan이 자사주 매입 중단, 대손충당금 확대 등을 결정하자, 시장에서는 향후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확대. Great Hill Capital의 Thomas Hayes 역시 JPMorgan의 조치들은 결국 경기침체를 대비한 것이라고 진단
- 한편 Morgan Stanley도 2/4분기 이익이 24억달러로 전년동기비 30% 감소. 주당순이익은 1.39달러를 나타내 9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예상치(1.53달러) 하회. 이는 기업자문, 기업공개, 글로벌 인수합병 부진 등이 주요 원인
- Morgan Stanley의 Sharon Yeshaya CFO는 인수합병은 결국 가격의 회복과 시장이 향후 경제 전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언급하여, 향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시각을 피력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연준 월러 이사, 7월에 0.75%p 인상이 적절. 필요 시 인상폭 확대 검토

- 6월 소비자물가를 고려할 때 7월 0.75%p 인상을 지지한다고 발언. 다만 소매판매 등의 지표들에서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낮출 정도로 둔화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면 보다 큰 폭의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첨언
- 한편 세인트루이스 연은 블라드 총재 역시 0.75%p 인상을 지지하며, 이와 같은 폭으로 2차례 연속 인상하는 것은 전례 없는 조치라고 평가. 또한 향후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경우 연말에 정책금리가 4%를 넘을 수 있다고 부연. 일부에서는 이번 발언들이 7월 1.0%p 금리인상 우려를 완화시켰다고 진단

■ 미국 7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8개월래 최고치. 공급 부족 여건은 불변

- 해당 건수는 24.4만건으로 전주(23.5만건)대비 증가. 전문가들은 이번 증가가 노동공급 부족의 해소 신호일 수 있으나 아직은 수급이 팽팽하다고(tight) 평가

■ 미국 6월 생산자물가 상승률, 높은 수준 지속. 에너지 가격 급등 등에 기인

- 해당 상승률은 11.3%로 예상치(10.7%)와 전월치(10.9%) 모두 상회. 근원 생산자물가(PPI)는 전년동월비 8.2% 올라 전월(8.5%) 대비 하락. 다만 최근 원유 및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조만간 PPI의 상승세도 둔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

■ 유럽위원회,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. 에너지 공급 교란 등이 배경

- '22년과 '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(각각 2.7%→2.6%, 2.3%→1.4%) 인플레이션 전망은 상향(각각 6.1%→7.6%, 2.7%→4.0%). 젠틀로니 집행위원은 러시아의 에너지, 곡물 공급 교란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제심리 악화를 원인으로 거론

■ 독일 경제부, 하반기에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 감소 등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

- 상반기에 러-우 전쟁에 따른 영향을 효과적으로 극복했으나 하반기에는 러시아 가스 공급 관련 불확실성 등이 경제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표

■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, 모기지 상환 거부 운동의 영향을 파악하도록 요청

- 금융당국과 은행을 통해 해당 운동이 초래할 수 있는 충격을 진단하겠다는 방침. 전문가들은 이러한 집단행동으로 부실대출 비율이 3~5배 증가할 수 있고, 일부 은행의 경우 부동산 관련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. 최근 일부 주택건설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주택매입자들이 모기지 상환을 중단

■ IMF,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 부양책이 필요

- 제리 라이스 대변인은 중국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환영하나, 현재 진행 중인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. 아울러 사회보장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이전지출에 초점을 두면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권고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7/15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6월 소매판매 및 7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, 중국 2/4분기 GDP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연준의 인플레이션 제어, 향후 정치·경제적 난관 극복이 중요 - 블룸버그

(What It Will Take for the Fed to Tame Inflation)

-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제어 노력에 일부 효과가 있음을 시사. 그러나 인플레이션 목표(2%) 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실업률(현재 3.6%)의 큰 폭 상승을 유도해야 하는 어려움도 존재. 과거에는 실업률의 0.5%p 상승도 경기침체를 의미
-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은 더욱 공격적인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심화로 연결될 가능성. 한편, 금리가 상승하면 연준의 이자비용이 증가하며 재정적 부담을 확대할 전망. 이는 정치권의 비난을 초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

■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, 실질적으로 오류가 큰 편 - Financial Times

(Why a price cap on Russian oil is a bad idea)

- 미국 정부는 동맹국에게 러시아산 원유 구매 시 가격상한제 도입을 주장.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발한 러시아에게 자금을 차단하면서 유가 오름세를 억제하기 위한 의도.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국제 유가를 올릴 소지
- 이와 같은 제재는 러시아의 원유매출을 줄이겠지만, 러시아산 원유의 부분적인 공급 축소를 초래하여 다시 유가를 높일 수 있기 때문. 또한 전세계의 러시아 원유 의존도를 줄이는 구체적 내용이 부재. 오히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만 높일 우려

■ 연준의 통화정책,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 강화 필요 - Financial Times

(US recession is a smaller danger than long-term inflation)

■ 유로화 가치,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 고려 시 추가 하락 예상 - WSJ

(Parity Is Unlikely to Be the Bottom for the Euro)

■ 중국의 모기지 상환 거부 운동, 은행권에 상당한 부담 초래할 가능성 - 블룸버그

(Is China Stumbling Into Its Own Mortgage Crisis?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